

제2회 A+

제2회 동남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홍재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	성명	원티타오 스영	학년	4	생년월일	1991년 06월 26일
----	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-

가 죽 과 나 의 날 개
 수 업 을 마 지 고 기 숙 사 에 졸 로 돌 아 가
 고 있 는 길 이 었 다. 오 늘 따 라 하 는 이 만
 고 어 딘 가 에 서 불 어 온 꽃 향 기 가 나 의
 근 에 들 이 왔 다. 나 는 자 아 를 송 이 를
 중 려 다 부 나 새 집 으 자 나 발 견 했 다.
 몸 마 새 가 새 기 들 에 게 연 심 기 면 여 죽 고
 있 었 다. 관 관 무 었 다 가 몸 마 새 가 밥 자 기
 은 부 개 로 자 는 품 이 나 아 갔 다. 나 의
 어 곤 에 수 견 지 나 가 이 년 은 나 개 를
 따 나 부 곤 있 었 고 나 는 그 대 가 죽 이 고
 리 앙 겠 다.
 가 조 은 나 의 나 개 라 고 해 도 과 인 이
 아 니 다. 가 죽 이 없 으 면 나 개 가 없 는 새
 처 몸 부 아 관 숙 도 없 고 심 지 이 산 수
 도 없 는 것 이 틀 린 없 다. 이 에 따 라 가
 호 이 나 에 게 연 마 나 종 종 한 지 모 르 겠 다.
 나 는 비 를 만 응 태 가 죽 은 나 결 에
 의 의 조 곤 비 를 막 아 주 는 나 개 이 다.
 비 가 쏘 아 쳐 도 나 는 두 려 움 없 이 힘 이
 게 견 이 간 다. 가 죽 이 는 나 표 에 있 는 나
 가 생 지 나 의 학 장 시 전 이 태 운 것 다.
 아 마 라 공 세 된 것 거 로 나 를 태 운 주 었
 던 여 는 나 이 었 다. 비 가 멈 췄 나 게 내 리
 고 있 었 다. 아 버 지 님 에 약 마 있 었 던

A+

제2회 동남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호찌민 인문 사회과학 대학교	성명	웬티타로스엉	학년	4	생년월일	1991 년 06 월 26 일
----	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----

나 는 아버지를 꺾어 안고 있었 다. 아버지가
 침잔을 문 몸을 다 하고 비를 막아 주었
 다. 비가 세게 쏟아지고 바람이 세게
 불어 오고 있었 는데도 아버지가 독에 앉
 았 았 던 나는 괜히 떠돌아다니는 거였다. 나
 는 몸이 연 으나 마음은 따듯하고 그
 어 느 때 보 다 사랑 을 느끼 게 되 었 다. 아
 버지 의 사랑 이고 가족 의 사랑 이다. 가 족
 에 대해 만 화 가 면 여 격 문 에 서 북 터 나
 지 켜 죽 는 난 개가 는 만 조 표 현 한 수
 있 다.

인생은 산아가면 서 누나 여러 몸과
 시련을 만나 적 이 한 두 번 이 아 니 다.
 “ 슬 픔 을 지 키 았 고 피 는 꽃 이 미 덕 이
 야.” 이 시를 보 나 나의 인생도 눈물 리면
 서 피 는 꽃 이 아 닌 꽃 다. 시련 에 부
 딛져 넘어진 나를 일으켜 주 는 난 개 는
 나의 가족 이다. 가족 은 나의 난 개 처럼
 사랑 나 품 에 있 고 여러 몸 속 에 서 벗 어
 나고 라는 꽃 이 나 아 갔 습 니까
 죽 는 난 개 이 아 고 새 생 한 다. 가 족 과
 연 락 에 나 는 지금 처럼 성숙 해 지고 유
 격 가 다. 비 속에서 거품을 수
 의 아버지 이머니의 모든 불꽃 수
 는 더욱더가득은 사랑한다. 그리고

제2회 동남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충주대인 인문사회과학 대학교	성명	원티타오 소영	학년	4	생년월일	1991 년 06 월 26 일
----	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----

사	상	은	바	탕	은	조	나	는	어	성	수	해	지	고
아	무	도	전	도	이	겨	별	수	있	다.	이	를	테	
면	가	죽	은	나	에	게	침	영	어	모	든	시	려	
은	님	어	간	숙	있	끼	해	죽	는	나	개	이	다.	
금	무	인	부	다	도	가	호	도	나	의	꿈	은	물	아
는	년	은	부	개	간	고	만	라	고	표	다.	나	은	사
사	사	관	부	에	어	간	시	전	에	바	겨	들	있	던
나	는	무	기	에	견	렸	다	가	문	져	누	웠	던	나
어	머	니	가	쟁	겨	죽	성	죽	그	를	은	만	은	면
아	금	연	를	지	도	왕	게	다	시	죽	너	간	수	있
다.	그	리	고	가	호	끼	리	포	여	서	오	술	도	술
이	야	기	를	나	누	던	기	여	도	나	의	마	음	속
에	간	견	되	고	있	다.	이	이	야	기	와	나	의	
여	권	시	전	은	나	를	꿈	이	있	는	사	람	은	로
만	들	있	다.	화	지	만	이	꿈	은	표	고	간	적	해
죽	는	부	개	는	가	죽	어	다.	너	는	꿈	이	있	
이	야	돼.	꿈	이	있	는	사	람	이	나	개	가	있	었
는	새	야.	그	리	고	나	는	너	를	핀	어.	아	버	
지	와	어	머	니	의	파	쓰	름	이	새	다.	이	만	쓰
를	은	면	서	자	라	고	있	는	나	는	인	제	나	웃
은	은	것	고	누	겨	몽	이	있	어	이	견	어	간	다.
는	꿈	이	있	고	그	꿈	에	게	착	은	인	만	어	죽
는	부	개	간	가	호	이	있	은	너	개.				
아	부	조	아	금	에	나	가	도	나	표	에	가	호	
이	있	다	는	것	은	명	심	환	것	어	다.	그	리	고

